

항일가요의 가사 결합양상과 특성

- 〈조지아행진곡〉 활용 곡을 중심으로 -

노 복 순*

Ⅰ 국문초록 Ⅰ

항일가요의 생성·생존과 진화·확장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조를 활용한 ‘노가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가장 많은 악곡을 생성한 원곡 중 하나인 〈조지아행진곡〉에 주목하고, 그 활용 곡들을 망라하여 다양한 가사와의 결합양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 대상 곡들은 곡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사의 음절수에 따른 리듬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노래들은 가사의 형식과 곡조의 리듬을 비교해 볼 때, 원곡이 아닌 찬송가 393장〈우리들의 싸울 것은〉을 ‘노가바’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원곡으로 보고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리듬을 초점화하여 원곡의 강화된 부점 리듬을 원용한 경우, 부점 리듬을 절제한 경우, 다양한 변이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폈다.

그 결과 가사의 구조와 부점 리듬과의 상관성을 살폈으나 밀접한 관련성은 없어 보였다. 동일 음수율을 가졌더라도 곡에 따라 부점 리듬이나 균등 리듬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리듬의 다양한 변이형태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아마도 동일 곡조를 여러 곡으로 ‘노가바’하면서 다름과 차이를 모색하고자 하는 창작 욕구가 반영된 창작 방법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항일가요, 조지아행진곡, 우리들의 싸울 것은, 독립군가, 조지아행진곡 활용 곡, 항일가요의 가사결합양상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Ⅲ. 가사와 곡조의 결합양상 |
| Ⅱ. 찬송가를 ‘노가바’한 항일가요 | Ⅳ. 맺음말 |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 bluesun910@naver.com

I. 머리말

항일가요¹⁾의 생성 방법 중 곡조차용은 일반화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졌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항일가요인 <독립군가>, <학도가>, <신흥무관학교교가> 등도 동일 방법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항일가요 관련 연구자들이 활용 빈도가 높은 원곡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발생한 항일음악 관련 창가를 해제·연구하면서²⁾ 항일가요에서 <조지아행진곡>³⁾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활용한 노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들 활용 노래들은 어떤 방법으로 특정 곡조에 얹어 불렀는가, 또 이들 노래의 가사는 형식과 내용이 다양한데 어떻게 특정 곡조에 얹어 부를 수 있었는가 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관심의 발로로 항일가요 중 가장 많은 활용 곡을 생산한 원곡 중 하나인 <조지아행진곡>의 활용 곡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항일가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조지아행진곡>을 단일 주제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항일가요의 다수 노래들이 기존의 잘 알려진 곡조에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악곡 분석과 해제를 통해 일부 항일가요의 원곡이 <조지아행진곡>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동은은 국내외의 인쇄본과 필사본의 항일음악 중 악보를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을 엄선하여 『항일음악 330곡집』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각 악곡에 대한 생성 배경, 가사의 의미와 지향, 악곡의 원곡을 밝히고 있는데 이 중 16곡⁴⁾을 <조지아행진곡>의 활용 곡으로 연구·발표하였다.

민경찬은 1,000여곡의 창가를 대상으로 한국 근·현대예술사 서술을 위한 기초 연구 시리즈인 해제집을

1)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대한 저항과 항전의 현장에서 부른 노래를 독립군가(獨立軍歌), 독립운동가요(獨立運動歌謠), 애국창가(愛國唱歌), 반일가요(反日歌謠), 항일가요(抗日歌謠), 겨레의 노래, 나라사랑노래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한다. 본고에서는 항일가요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고, 연구 대상의 노래들도 항일성의 여부를 중심으로 엄선하였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용어 중 ‘항일가요’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항일음악의 보급과 연구를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해제 및 DB구축’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6000곡의 가사를 DB화 하였고 이중 1,000곡에 대해서는 해제 작업을 하였다.

3) <https://blog.daum.net/osowny/12084986>, <조지아행진곡(Marching Through Georgia)>은 미국의 헨리 C. 워크(Henry Clay Work, 1832~1891)가 남북전쟁의 영웅 윌리엄 테쿰세 서먼(William T. Sherman, 1820~1891)장군의 조지아 행군을 기념하기 위해 1865년에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남북전쟁 막바지에 북군이 수세에 몰려 불리할 때 서먼 장군은 조지아의 험난한 길을 관통하여 남군을 기습함으로써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곡조는 현재 미국의 문화유산으로 올라 있다. 이 곡은 일제의 육군, 인도의 영국 육군 등에서도 널리 불리는 등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4) <경성2>(열성잇단 청년들아), <국문창립기념>, <작대>, <신흥무관학교교가>, <만세가>, <구세군가>, <군병가>, <자유가1>(한반도 강산 우리나라는), <한영서원가>, <구주전장 한인군가>, <나라보전>, <독립가4>(터졌고나 터졌고나 조선독립성), <보국>, <어린이날 노래>, <조선의 자랑>, <국민회가>(노동은 편저, 『항일음악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6). 이중 <자유가1>에 대해 전체 마디가 16마디인 점, ab+cb의 형식인 점, 앞 악절처럼 같은 구조에서 리듬을 다르게 만들거나 후렴처럼 같은 곡조에서 박을 길게 늘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선율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지아행진곡>이 원곡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는 편곡을 넘어 작곡의 개념으로 보고 작곡자 미상으로 표기하고 있다(노동은, 위의 책 157쪽 참조). 그러나 본고에서는 원곡과의 동일 선율을 찾아보기 어려워 <자유가1>은 활용 곡이 아닌 창작곡으로 보고자 한다.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악보가 있는 창가집 중 음악교과서로 사용된 창가집에 수록된 창가, 한국 근대음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창가집에 수록된 창가 120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조지아행진곡〉이 원곡인 창가로 〈야구가〉, 〈휘문야구응원가〉, 〈작대〉, 〈보국〉, 〈경성〉, 〈국문창립기념〉, 〈압호〉, 〈한영서원가〉가 있다고 하였다.⁵⁾

반혜성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출판된 『애국창가』에 수록된 전곡 77곡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⁶⁾에서 〈조지아행진곡〉 곡조를 활용한 노래는 〈보국가〉, 〈작대가〉, 〈한영서원가〉, 〈만세가〉, 〈군병가〉, 〈깊이생각〉 등 6곡을 들고 있다. 김보희는 하와이판 『애국창가』(1916)를 중심으로 광성중학교 『최신창가집』(1914)과 1910년대 ‘애국창가’를 싣고 있는 창가와 『신한민보』에 수록된 창가를 연구하였다.⁷⁾ 이 연구 결과 중 하나로 〈조지아행진곡〉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요를 파생시켰음을 알 수 있다⁸⁾고 하였다. 또한 『애국창가』의 대부분의 곡조는 새로 창작된 창가가 아니라 기존의 찬송가와 일본 창가, 그리고 외국의 민요선율을 차용하여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에 필요한 새로운 가사를 지어 노래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개별 악곡을 대상으로 한 해제 차원의 연구에 그치고 있을 뿐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노래를 총망라 하여 개사 가사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이들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발표된 〈조지아행진곡〉 곡조를 활용한 항일가요들과 항일음악 해제 과제를 수행⁹⁾하면서 추출한 활용 곡¹⁰⁾을 최대한 확보하여 〈조지아행진곡〉 곡조와 다양한 가사가 어떻게 결합하여 악곡을 형성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가사가 특정 곡조와 결합하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리듬과 박자를 생산해 내는가이다. 이는 문학적 측면에서 가사의 음절과 음보의 관계와 비교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 곡조를 사용한 가요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도 궁구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조지아행진곡〉이 왜 이처럼 많은 항일가요로 활용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보겠다.

5) 민경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7. 이 중 〈야구가〉와 〈휘문야구응원가〉는 본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는 『최신중등창가집 부악리』, 『풍금독속중등창가집』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데 가사의 내용 상 항일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화음악논집 23: 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19.

7) 김보희, 『1910년대 국외 ‘애국창가’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 : 하와이판 『애국창가』(1916)를 중심으로』, 『동양학』 7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0, 175~176쪽.

8)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를 활용한 애국창가로 『애국창가』(1916)에 수록된 〈보국가〉, 〈작대가〉, 〈한영서원가〉, 〈만세가〉, 〈군병가〉, 〈자유가〉와 『최신창가집』(1914)에 수록된 〈경성〉, 〈국문창립기념〉,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가 있다고 발표하였다(김보희, 위의 논문, 194쪽). 그러나 『애국창가』의 〈자유가〉는 〈조지아행진곡〉을 원곡으로 보기 어렵고, 『최신창가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는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를 활용한 노래인 것은 맞지만 『광복의 메아리』, 『배달의 맥박』에 수록된 곡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9) 과제를 수행했던 13개의 가요집에서 항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래 1,000곡을 엄선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자료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만주 광성학교 발행 『최신창가집부악전』(1914);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1916), 독립군가보존회 편찬 『광복의 메아리』(1982); 독립군시가집 편찬위원회 발행 『배달의 맥박 중보판』(1984); 한유한 『광복군가집』(1943); 전정혁 『조선족항일투쟁노래선집』(1995); 중국음악가협회연변분회편집 『혁명가곡집』(1961); 태인수, 『태인수창가집』(193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직속당역사연구회, 『혁명가요집』(1959); 이민 『동북항일연군가곡선』(1991); 리덕태·최윤영, 『조선족애창가요집』(1994); 『조선노래대전집』(2004); 남희철, 『항일가곡선집』(2015).

10) 애국창가 관련 13개의 가요집에서 그중 〈조지아행진곡〉을 원곡으로 하는 항일가요 18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Ⅱ. 찬송가를 ‘노가바’한 항일가요

1.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항일가요

본고의 연구대상인 항일가요 중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노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출처와 악곡을 살펴보고, 이들 노래들은 어떠한 점에서 원곡과 관련성을 가지는 지 가사의 구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를 활용한 항일가요 중 가사를 중심으로 중복된 내용¹¹⁾을 제외하면 19곡¹²⁾이다. 이들 대상 곡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조지아행진곡〉 활용 곡과 출처

출처	〈조지아행진곡〉 활용 곡	연구 대상
광성학교 최신창가집	작대, 보국, 경성, 국문창립기념	작대, 보국, 경성, 국문창립기념, 한영서원가, 깊이생각, 만세가, 군병가,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 제3로군성립기념가, 대구청년회가, 어린이날 노래, 구주전장 한인군가, 나라보전, 독립가, 조선의 자랑, 국민회가, 압호로,
애국창가	보국가, 작대가, 한영서원가, 깊이생각, 만세가, 군병가	
(사) 손승룡본 창가집 (곡) 애국창가	구세군가	
근화창가	조선의 자랑	
(곡) 이상준, 최신중등창가집 (사) 동아일보	어린이날 노래	
광복의 메아리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 어린이날 노래	
배달의 맥박	신흥무관학교교가, 독립군가, 대구청년회가, 어린이날 노래	
김인식, 교과적용보통창가집 전	압호로	
(사) 신한민보, (곡) 항일음악330곡집	구주전장한인군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독립가	
동북항일연군 가곡선	제3로군성립기념가	
항일음악330곡집	나라보전	
(사) 신한민보 (곡) 항일음악330곡집	국민회가	

11) 출처는 다르지만 곡명과 가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 출처와 곡명은 다르지만 가사 내용이 동일한 경우, 가사가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가사가 좀 더 일찍 발표된 자료의 노래를 선정하였다.

12) 항일 관련 가요집 자료에 수록된 〈조지아행진곡〉 곡조를 활용한 곡은 전체 27곡이다. 이 중, 〈작대(작대가)〉, 〈보국(보국가)〉, 〈어린이날 노래〉,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는 곡명, 가사, 곡조가 동일하고, 〈군병가(구세군가)〉는 곡명은 다르지만 가사가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 가사를 제외한 19곡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활용 곡들은 전체 26곡으로 나타난다. 그중 『최신창가집』의 〈작대〉, 〈보국〉은 『애국창가』의 〈작대가〉, 〈보국가〉와, 『애국창가』의 〈군병가〉는 손승룡본 『창가집』의 〈구세군가〉와, 『광복의메아리』의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 〈어린이날 노래〉는 『배달의 맥박』의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 〈어린이날 노래〉와 가사 내용이 동일하다. 또한 〈어린이날 노래〉는 이상준 『최신중등창가집』에 수록된 〈야구가〉 곡조¹³⁾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가사의 곡조와 동일하다. 이처럼 이들 동일한 노래를 다른 자료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동일 가요를 제외하면 19곡이 된다.

2. 〈조지아행진곡〉과 찬송가 〈모두 전진하라〉

항일가요의 원곡은 〈조지아행진곡〉으로 알려져있지만 이를 먼저 ‘노가바’하여 한국 찬송가로 불린 〈우리들의 싸울것은〉¹⁴⁾이 교회를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조지아행진곡〉이 아닌 이 곡의 가사를 바꾸어 부른 형태로 항일가요는 ‘노가바’되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그 근거 자료로 1865년 헨리 워크가 작사·작곡하여¹⁵⁾ 발표한 당시의 〈조지아행진곡〉과 이를 일본어로 개사하여 1900년에 발표한 악보와 가사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악보 1〉 〈조지아행진곡〉 표지, 가사, 악보¹⁶⁾

표지	가사 ¹⁷⁾
	Verse 1 Bring the good old bugle, boys, we'll sing another song Sing it with a spirit that will start the world along Sing it as we used to sing it, 50,000 strong While we were marching through Georgia. Chorus Hurrah! Hurrah! we bring the jubilee! Hurrah! Hurrah! the flag that makes you free! So we sang the chorus from Atlanta to the sea While we were marching through Georgia.

- 13) 『동아일보』 1925년 4월 30일 6면, 여기에는 ‘곡조는 〈야구가〉(장엄하고 활발한 야구수들아)와 한가지라고 명기 되어있다.
- 14) 일본 홀리네스교단 초창기 지도자인 미다니 다네끼지(三谷種吉, 1868~1945) 목사가 작사하여 그가 편집 출판한 『복음창가, 1900』 1장에 〈모두 전진하라 · 皆進め〉라는 제목으로 넣은 것이다. <http://blog.daum.net/osowny/12084986>
- 15) 〈악보1〉의 표지와 악보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Words and Music by HENRY C. WORK.”라고 표기되어 있다.
- 16) Work, Henry C. (Henry Clay), *Marching through Georgia; In honor of Maj. Sherman's famous march "from Atlanta to the sea"*; No. 29, Root & Cady, Chicago (Ill.), 1865. <https://repository.duke.edu/dc/hasm/b2018>, 미국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소장 악보 자료에는 악보의 표지, 노래 악보 3쪽과 판권까지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어 1865년 출판 당시 〈조지아행진곡〉의 음악 내용과 서지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언급하는 〈조지아행진곡〉 관련 내용은 대부분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 17) 한정된 지면상 가사는 1절과 후렴만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듀크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1865년 발표한 〈조지아행진곡〉은 성악곡으로 코러스 부분은 혼성 4부 합창과 피아노 반주로 화음을 이루는 완전한 합창곡 악보로 작곡된 노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가사의 내용과 구조로 보아 이를 항일가요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조지아행진곡〉을 일본의 미다니 다네키지(三谷種吉) 목사가 일본어로 작사하여 『복음창가, 1900』 1장에 〈모두 전진하라·-皆進め〉¹⁹⁾라는 제목으로 수록한 악보와 가사를 살펴보겠다. 참고로 여기에 수록된 일본어 가사 1절과 후렴만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과 동일한 내용의 가사를 확인할 수 있다.

〈악보 2〉〈모두 전진하라〉악보와 가사

악보	일본어 가사	한국어 번역 가사
	1절 我らのいくさは肉ならず 我らのいくさは人ならず 我らは惡魔とたたかひて 罪よりはなるべし。 〈折り返し〉 皆進め もろともに 皆歌へ もろともに 惡魔の軍勢とたたかひて かちどきあぐるまで。	1절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인간 아니요 우리들은 악마들과 싸움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될지라 〈후렴〉 일심으로써 전진하여라 일심으로써 노래불러라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개선가를 부를때까지

18) <https://repository.duke.edu/dc/hasm/b2018>에서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Choruses, Secular(Mixed voices, 4 parts) with piano라고 명시되어 있다.

19) <https://repository.duke.edu/dc/hasm/b2018>, 미다니 다네키지(三谷種吉, 1868~1945) 작사·헨리 C. 위크(Henry Clay Work, 1832~1891) 작곡, 〈第一皆進め〉, 『복음창가, 1900』, 1900.

위의 두 악보를 비교해 보면, 헨리 워크가 1865년 당시 발표한 〈조지아행진곡〉을 미다니 다네끼지(三谷種吉) 목사가 일본어로 노가바하여 〈모두 전진하라〉로 발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곡 〈조지아행진곡〉은 B♭장조, 4/4박자, 16마디로 ♪ ♪ ♪ ♪ ♪ ♪ ♪ ♪의 리듬이 주를 이루며 부점리듬이 13회 출현한다. 반면 〈모두 전진하라〉는 G장조, 2/4박자, 32마디로 ♪ ♪ ♪ ♪ / ♪ ♪ ♪ ♪로 부점리듬이 32회 출현한다. 비교하면, 곡조는 거의 같으나 〈조지아행진곡〉 셋째 마디, 즉 〈모두 전진하라〉의 5~6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선율에 변화를 주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동일곡조에 일본어로 개사하면서 부점리듬을 확대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의 두 악보를 비교해 볼 때 항일가요는 곡조 면에서는 〈조지아행진곡〉을 원용하였지만 가사 측면에서는 미다니 다네끼지(三谷種吉) 목사가 일본어로 노가바한 〈모두전진하라〉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²⁰⁾로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결교단에서 출간한 『신증복음가』에 수록된 〈March Onward!(데4 힘써나가세)〉²¹⁾의 가사와 곡조가 〈第一皆進め(모두 전진하라)〉와 정확히 일치한다²²⁾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²³⁾

따라서 본고는 찬송가 〈우리들의 싸울 것은〉을 기반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가요가 확대 재생산되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²⁴⁾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과 항일가요로서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를 활용한 노래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독립군가〉²⁵⁾와 비교해 보겠다.

3. 가사의 형식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의 가사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4절로 구성된 분연형식으로 후렴이 있다. 각 절은 4행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행의 리듬을 분석해 보면, 4·4·5조/4·4·5조/4·4·5조/4·5조 4행으로 3음보의 4·4·5조(8·5)조가 주 리듬으로 제4행에서는 4음절이 적은 2음보의 4·5조로 변체시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각 절에도 모두 동일한 구조이다.

각 절에 이어지는 후렴의 형식은 4행으로 5·5조/5·5조/4·4·5조/4·5조로 구성되어 2음보 5·5조가 중심리듬이나 3행에서는 3음보 4·4·5조의 변체시형을 이루고 있다. 5·5조는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의 전

20)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은 〈데4 힘써나가세〉와 곡조와 가사가 동일하며 곡명만 다르다.

21) 〈데4 힘써나가세〉는 1919년 『신증복음가』에 처음 수록된 이후 1924년, 1930년, 1937년, 1940년 1947년 『부흥성가』 목록에는 보이나 이후에는 찬송가 제목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22) 〈조지아행진곡〉과 〈모두 전진하라〉를 비교하면 곡조면에서 5~6마디의 선율에 차이가 있었지만 『신증복음가』에 수록된 〈March Onward!(데4 힘써나가세)〉는 미다니 다네끼지가 노가바한 〈모두 전진하라〉와 비교하면 곡조와 리듬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성결교단에서 발행한 『신증복음가』에 수록된 〈March Onward!(데4 힘써나가세)〉는 〈조지아행진곡〉을 노가바한 〈모두 전진하라〉와 곡조와 리듬 가사가 동일한 노래라 하겠다. 즉 이는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안한 노래다.

23) 논의의 편의를 위해 『신증복음가』에 수록된 〈데4 힘써나가세〉 악보는 4행 〈악보3〉에 제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24) 본고의 논리로는 〈데4 힘써나가세〉와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논리일 수 있지만 현재는 이곡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으로 널리 알려져 애창하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이 곡명으로 비교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25) 1914년에 발표된 〈보국〉, 〈경성〉, 〈국문창립기념〉도 〈독립군가〉와 거의 유사한 음절과 음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제시한 악보는 1982년에 출간된 『광복의 메아리』에 수록된 것으로 〈독립군가〉의 가사와 곡조가 같이 수록된 최초의 원본이다. 해방 이전 또는 1982년 이전에는 곡조와 가사가 함께 실린 악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시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운율로 전통적 정형율에서 벗어난 개화기 시가에서 볼 수 있는 시형이다. 후렴의 마지막행인 4행은 4·5조로 1, 2행의 5·5조에서 1음절을 덜어 낸 구조이다. 따라서 각 절은 3음보 중심으로 마지막 4행에서 2음보로 변화를 주었고, 후려에서는 2음보 중심 구조에서 3행에 4음보로 변화를 주어 자유로운 시형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의 메아리』 <독립군가>의 가사는 전체 4절로 구성된 분연 형식으로 후렴이 있다. 각 절은 4·4·5/3·4·5/3·4·5/3·5조 4행 3음보 중심으로 마지막 4행에서는 2음보로 구성되어 변화를 주고 있다. 1행의 4·4·5조는 4·4는 전통적 리듬이고 5는 2·3과 3·2로 분할이 가능한 8·5조 구성이다. 2, 3행의

〈표 2〉 <우리들의 싸울 것은>과 <독립군가> 가사 구조 비교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음보율	『광복의 메아리』 <독립군가> ²⁶⁾	음보율
1.		1.	
우리들의 싸울것은 혈기아니요 [4·4·5]	3음보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4·4·5]	3음보
우리들의 싸울것은 육체아니요 [4·4·5]	3음보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아느냐 [3·4·5]	3음보
마귀권세 힘써싸워 깨쳐버리고 [4·4·5]	3음보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동포들 [3·4·5]	3음보
죽을영혼 살릴것일세 [4·5]	2음보	건질이 너와나로다 [3·5]	2음보
(후렴)		(후렴)	
일심으로써 힘써나가세 [5·5]	2음보	나가가 싸우려나가 [4·5]	2음보
일심으로써 힘써싸우세 [5·5]	2음보	나가가 싸우려나가 [4·5]	2음보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4·4·5]	3음보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때까지 [4·4·5]	3음보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4·5]	2음보	싸우려 나가세 [3·3]	2음보
2.		2.	
우리들의 입은갓옷 쇠가아니요 [4·4·5]	3음보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낼건가 [4·4·5]	3음보
우리들의 가진보검 강철아니요 [4·4·5]	3음보	우리들이 약하다고 낙심할건가 [4·4·5]	3음보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복음에 [4·4·5]	3음보	정의의 날쎈칼일 비끼는곳에 [3·4·5]	3음보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4·5]	2음보	이기리 너와나로다 [3·5]	2음보
3.		3.	
악한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4·4·5]	3음보	너살거든 독립군의 용사가되고 [4·4·5]	3음보
우리들의 대원수는 구주예수니 [4·4·5]	3음보	나죽으면 독립군의 훈령이됨이 [4·4·5]	3음보
두려말고 용기있게 힘써싸우세 [4·4·5]	3음보	동지야 너와나의 소원아니냐 [3·4·5]	3음보
구원함을 얻을때까지 [4·5]	2음보	빛내리 너와나로다 [3·5]	2음보
4.		4.	
죄악중에 빠진사람 죄를뉘우고 [4·4·5]	3음보	암록강과 두만강을 뛰어건너라 [4·4·5]	3음보
십자가에 달린예수 믿기만하면 [4·4·5]	3음보	악독한 원수무리 쓸어몰아라 [3·4·5]	3음보
위태한데 빠진영혼 구원얻어서 [4·4·5]	3음보	잃었던 조국강산 회복하는날 [3·4·5]	3음보
천국백성 될것임일세 [4·5]	2음보	만세를 불러보세 [3·4]	2음보

26) 독립군가보존회, 『독립군가곡집 광복의 메아리』, 서울: 독립군가보존회, 1982, 45쪽.

3·4·5조는 7·5조로 외래적 리듬의 개화기 창가 구조이다. 마지막 4행은 3·5로 5는 2·3의 구조이다. 그러나 4절 4행은 3·4로 1음절을 덜어낸 리듬으로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각 절은 1음절 정도의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1, 2, 3행은 3음절, 4행은 2음절로 구조화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후렴은 4·5/4·5/4·4·5/3·3조의 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행의 4·5조는 전통적 리듬인 4·4조의 변형으로 정형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개화기 시가에서 볼 수 있다. 3행의 4·4·5조는 8·5조로 5는 2·3, 3·2으로 분할되어 창가에 자주 등장하는 구주이다. 마지막 4행의 3·3조는 전통적 4·4조의 변형 또는 5·5조의 개화가가 변형으로 볼 수 있는 자유로운 시도를 추구한 시형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찬송가 〈우리들의 싸울 것은〉과 『광복의 메아리』 〈독립군가〉의 가사구조를 살펴본 결과 각 행을 비교할 때 약간의 음절을 가감한 변화는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구조는 동일하다고 본다. 각 절 4행, 후렴 4행으로 구성된 4절의 가사를 지닌 분연형식인 점, 모든 절에서 1, 2, 3행은 3음보, 4행은 2음보이고 후렴은 1, 2, 4행은 2음보 3행은 3음보로 구조화된 점, 가사 내용이 진취적이고 투쟁적인 점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음수율 면에서 1절 4행과 후렴 1,2,4행에서 정형성을 벗어난 자유로운 변제 시형으로 음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사를 바꿔 부를 때 음수의 차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수에 맞게 박의 길이를 가감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싸울것은〉과 〈독립군가〉는 모든 행에서 음보율과 전체적인 형식이 일치하고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가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4. 곡조의 리듬

〈악보 3〉 〈힘써나가세〉²⁷⁾ 〈우리들의 싸울것은〉²⁸⁾ 〈독립군가〉 악보 비교

힘써나가세	우리들의 싸울것은	독립군가
4. March Onward!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393 1.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2.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3.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4.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우리들의 싸울것은 무엇이요	독립군가 1.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2.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3.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4.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독립군가

27) 성결교단, 〈March Onward〉, 『신증복음가』, 1919, 4쪽. 오선보 아래에 〈데4 힘써나가세〉로 곡명을 제시하고 1~4절의 가사와 후렴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과 거의 동일한 가사구조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악보를 제시하여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28) <https://godpeople.or.kr/hymn/2825430>

요에 수용되어 ‘노가바’한 〈조지아행진곡〉 곡조는 일본 찬송가로 ‘노가바’된 것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한국 찬송가로 수용하였고 이를 항일가요의 다양한 노래로 ‘노가바’한 것으로 보인다.

Ⅲ. 가사와 곡조의 결합양상

〈조지아행진곡〉을 원용한 항일가요를 살펴보면 리듬의 형태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 부점리듬의 출현 빈도이다. 원곡은 부점리듬이 총33회 출현한다. 그런데 이들 활용 곡들은 부점리듬의 출현 빈도에 따라 13~16회와 27~35회로 그 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아예 부점리듬이 제거된, 원곡과는 완전 변이된 유형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을 유형화하여 가사의 구조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1. 원곡 원용 유형

노래의 리듬과 가사의 구조를 중심으로 원곡의 활용도가 높은 악곡²⁹⁾을 구분하여 보면, 〈한영서원가〉, 〈만세가〉, 〈군병가〉, 〈압호로〉, 〈어린이날 노래〉, 〈독립군가〉, 〈신흥무관학교교가〉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악곡들을 살펴보겠다.

〈한영서원가〉는 『애국창가』(1916)에 第十八장 〈한영서원가〉로 수록되어 있다. 모두 4절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1절 가사를 보면, 4·4·5/4·4·5를 ♪ ♪ ♪ ♪ ♪ ♪ ♪의 리듬으로 2행 4마디, 후렴은 3·4·5/3·4/4·5/4·5/3·4·5/4·4의 6행 12마디로 가사 구성의 형식면에서 후렴을 확대하여 반복하고 있어 모곡에 변화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악곡을 보면, 4/4박자 16마디로 동일하게 구성한 것이고 조성은 Bb장조이다. 또한 리듬 구성도 1자1음으로 구성하고 있어 8·5조의 음수율을 지닌 가사로서 원곡의 리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즉 본 절을 2행으로 짧게 구성하였고 후렴에서 “한영서원만세”를 4번 반복하여 한영서원 교가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만세가〉는 『애국창가』(1916)에 수록된 곡으로 〈한영서원가〉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은 2행으로 후렴은 6행으로 Bb장조 4/4박자, 16마디로 구성된 악곡이다. 여기에서 ‘활발한 기상으로 손을들시다/○○○○만만세라’의 가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곡조에서도 동일가사는 동일 리듬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군병가〉 역시 『애국창가』(1916)에 수록된 곡으로 가사만 수록되어 있고 보표는 18장 〈한영서원가〉와 같다고 표기되어 있다. 가사 앞부분은 4·4·5/4·5·5/4·4·5/5·3 4행의 8·5조 구성이고 후렴은 6·6/6·6/4·4·5/3으로 모곡의 가사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마지막 행에서 3음절만으로 리듬을 만들다 보

29) 원곡은 부점 리듬을 33회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노래들도 27~35회까지 사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점 리듬을 최소화 한 악곡들과 구분하였다.

30) 『애국창가』(1916), 47쪽, 〈만세가〉는 가사만 수록되어 있고 “보표는 18장(한영서원가)과 같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니 아마도 붙임줄을 사용한 일자다음(一子多音)의 방법으로 리듬을 맞춰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압호로〉³¹⁾는 Bb장조 4/4박자 16마디로 1절 가사의 앞부분은 〈작대〉와 동일하지만 Ab장조 4/4박자 16마디의 〈작대〉와는 리듬은 다르다. 〈작대〉는 부점리듬이 제한적이지만 〈압호로〉는 원곡의 리듬과 동일한 구조로 부점리듬이 주를 이룬다. 동일한 내용의 가사라도 리듬과 조성을 달리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어린이날 노래〉는 『배달의 맥박』³²⁾과 『광복의 메아리』에 1절 가사가 악보와 함께 수록 되어 있다. 그런데 〈어린이날노래〉가사는 『동아일보』에 2절로 된 가사가 처음 발표되었는데 가사와 함께 말미에 “곡조는 〈야구가〉 ‘장엄하고 활발한 야구수들아’와 한가지”³³⁾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방정환이 작사한 〈어린이날 노래〉³⁴⁾는 기존의 노래인 〈야구가〉³⁵⁾ 곡조에 노가바 형식으로 불려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일 곡명으로 광성학교 『최신창가집』(1914)에 〈야구〉(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자야)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곡명만 동일할 뿐 가사와 곡조는 이상준, 『중등창가집』과 다르다. 따라서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 수록된 〈야구〉는 〈어린이날 노래〉와는 다른 곡조이다. 또한 『애국창가』(1916)에는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의 〈야구〉와 곡조는 같으나 곡명이 다른 곡으로 〈소년남자가〉가 있다. 따라서 애국창가의 〈소년남자가〉와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의 〈야구〉는 〈어린이날노래〉의 곡조 〈야구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날노래〉 가사의 음수율을 보면 4·3·5/3·4·5/4·4·5/3·5//5·5/6·5/4·4·5/6·3이다. 후렴 첫 행을 〈야구가〉와 비교해 보면 ‘야구수들아 야구수들아’ → ‘만세만세를 갖치부르며’³⁶⁾로 동일한 음절과 음보로 창작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세만세를’의 조사 ‘를’을 제거하고 ‘만세만세’의 4음절로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조사 ‘를’을 넣어 5음절로 동일하게 개사한 것은 원곡의 리듬을 그대로 살려서 부르기 용이하게 하는 방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광복의메아리』와 『배달의맥박』에 수록되어 있는데 동일가사의 동일곡조로 모곡과 마찬가지로 4행의 후렴이 있는 각 절 4행의 3절로 구성되어있다. 1절의 각행 음절은 4·4·5/4·4·5/4·4·5/3·5이고 후렴은 4·5/4·5/4·4·4/3·5의 구조로 두 가요집의 가사가 8·5조로 거의 동일³⁷⁾

31) 김인식, 『교과적용보통창가집 전(教科適用普通唱歌集 全)』, 경성(京城): 보급서관(普及書館), 1912, 第二十六. 이 자료집은 오선보와 한국어로 기록된 음악교과서이다. 보통학교와 고등학교, 고등여학교의 교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발행사를 경성의 청송당서점(靑松堂書店)으로 옮겨서 1917년 5월8일 재판을 발행하였다. 초판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32) 독립군시가집편찬위원회, 『독립군 시가집 배달의 맥박』 증보판, 1984, 456쪽.

33) 〈어린이날노래〉는 동아일보 1925.04.30.6면에 처음 그 가사가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곡조는 〈야구가〉 ‘장엄하고 활발한 야구수들아’와 한가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사는 이상준이 작사한 노래로 중등창가집 53~54쪽에 실려있다.

34) 『시대일보』 1926.4.26.4면; 『동아일보』 1927.4.26.3면; 『중외일보』 1928.5.3.2면; 『동아일보』 1932.5.1.5면; 『신한민보』 1936.6.4.3면; 『매일신보』 1931.5.3.4면, 『동아일보』에 1925년 4월 30일 6면에 발표된 이후 거의 매년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시대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중외일보』, 『신한민보』 등에 그 가사를 발표하였는데 매년 곡조에 대하여 “곡조는 野球歌” 또는 “野球歌曲”으로 소개하고 있다.

35) 이상준, 『최신중등창가집 부악리』(1922), 73~74.

36) 1925년 9월 25일 『동아일보』 6면에 〈어린이날 노래〉 가사의 후렴 첫 어절은 ‘만세만세를 갖치부르며’로 발표하였는데 1928년 5월 3일 『중외일보』의 기사를 보면 ‘동모여동모여 손을잡고서’로 개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후 1936년 6월 4일 『신한민보』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날노래〉 가사가 신문에 소개되었는데 모두 개사된 후렴으로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7) 1절 4행의 가사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데 『광복의 메아리』에는 ‘젓 먹여 기른 이’라고 하였고, 『배달의 맥박』에서는 ‘젓 먹여준 이’로 각각 표현하였다.

한데 음악 형식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복의 메아리』에는 G장조 2/4박자 32마디로, 『배달의 맥박』에는 F장조 4/4박자 16마디로 각각 기보되어 있다. 또한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후렴 첫 어절인 ‘우리우리’에서 첫음절 ‘우’를 앞마디의 마지막 박에 불러 엇박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배달의 맥박』에서는 9번째 마디 후렴에서 첫 박에 ‘우리우리’의 첫 음절 ‘우’를 불러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듬면에서는 『광복의 메아리』에서는 ♩ ♩ ♩ ♩/♩ ♩ ♩ ♩, 『배달의 맥박』에서는 ♩ ♩ ♩ ♩ ♩ ♩ ♩ ♩이 패턴화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다름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 가요집은 각각 1982년과 1984년에 출판된 것으로 독립군가보존회와 독립군시가집편찬위원회에서 생존지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발굴·수집하여 부른 노래를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차이는 원래 노래가 다르기 보다는 기보나 제보자들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원곡을 원용한 노래를 리듬과 밀접하게 관련된 음수율을 음보를 단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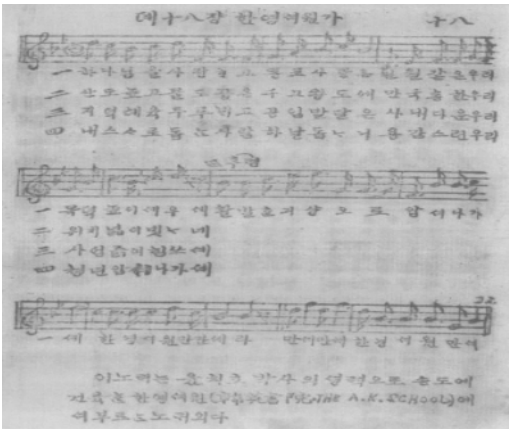
〈표 3〉 원곡을 원용한 유형의 향일가요

곡명	출처	1절 음수율	후렴 음수율
한영서원가	안애리 창가집 1915, 애국창가	4 · 4 · 5/4 · 4 · 5	3 · 4 · 5/4 · 4/4 · 6/4 · 6/ 3 · 4 · 5/4 · 4
만세가	애국창가	4 · 4 · 5/4 · 4 · 5	3 · 4 · 5/4 · 4/4 · 6/4 · 6/ 3 · 4 · 5/4 · 4
군병가	애국창가	4 · 4 · 5/4 · 5 · 5/4 · 4 · 5/ 5 · 3	3 · 3 · 6/3 · 3 · 6/4 · 4/5 · 3
압호로	김인식 보통창가집	4 · 4 · 5/4 · 5 · 5/4 · 4 · 5/ 3 · 3 · 2	3 · 3 · 5/3 · 3 · 5/4 · 4 · 5/ 3 · 3 · 2
어린이날 노래	동아일보	4 · 3 · 5/3 · 4 · 5/4 · 4 · 5/ 3 · 5	5 · 5/6 · 5/4 · 4 · 5/6 · 3
독립군가	광복의메아리	4 · 4 · 5/4 · 4 · 5/4 · 4 · 5/ 3 · 5	4 · 5/4 · 5/4 · 4 · 5/3 · 3
신흥무관학교 교가	광복의메아리	4 · 4 · 5/4 · 4 · 5/4 · 4 · 5/ 3 · 5	4 · 5/4 · 5/4 · 4 · 4/3 · 5

위와 같이 이들 노래 가사는 모두 후렴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8행의 구조로 구성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영서원가〉와 〈만세가〉는 후렴의 가사가 확대되고 앞부분의 가사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2음보격으로 나타나지만 후렴에서 6음보격으로 확장되어 전체적으로는 8음보격으로 동일하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이 모두 8음보격으로 구성되어 있고 4 · 4 · 5조의 8 · 5조를 중심으로 변화된 변체 시형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들 원용 노래들은 유사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들 노래의 가사는 음절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1음1자의 리듬

형태를 유지하며 원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곡을 원용한 노래로 부점리듬의 빈도가 원곡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가사와 곡조 구조면에서 동일성을 구축하고 있다하겠다.

〈악보 4〉 〈한영서원가〉³⁸⁾의 가사와 악보

가사	악보
一. 하나님을사랑하고 동포사랑은 일월같은우리목덕높이세우세 (후렴) 활발한기상으로앞서나가세 한영서원만만세라 만세만세한영서원만세 만세만세한영서원만세 활발한기상으로앞서나가세 한영서원만만세라	
二. 산도높고물고품은千고왕도에 만국통한우리위치 넓이 빛네	
三. 지덕태육두루비고공업발달은 사내다운우리사업줄여힘쓰세	
四. 내스스로돕는사람하날돕느니 용감스런우리청년앞서나가세	

〈한영서원가〉를 통해 가사의 음수율과 리듬의 관계를 원곡과 비교해 보겠다. 원곡인 〈우리들의 싸울 것은〉이 4·4·5/4·4·5/4·4·5/4·5/5·5/5·5/4·4·5/4·5 음수율을 가진 8음보격의 가사이다. 4/4박자에서 1행이 2마디를 이루는 1음보격은 음절수가 13개에서 제일 적은 경우는 4행과 8행에서 9개의 음절수를 가지고 있다. 음보격 단위로 보면 2마디 안에서 소화해야하는 음절수는 많게는 13개 적게는 9개

38) 〈한영서원가〉는 안애리 창가집(1915)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 창가집은 하와이 『애국창가』(1916)보다 먼저 출판된 가요집이지만 이는 항일가요나, 애국창가집이 아닌 일반적인 모든 창가를 수록한 가요집이다. 따라서 본고는 항일가요에 그 맥이 닿아있으므로 애국창가만을 엄선하여 수록한 『애국창가』의 〈한영서원가〉를 비교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로 안애리 『창가집』에 수록된 〈한영서원가〉는 G장조 4/4박자 16마디로 부점 중심의 리듬을 보인 4절로 구성된 노래이다. 따라서 애국창가에 수록된 〈한영서원가〉와는 단3도 이조된 곡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된다. 따라서 리듬은 이들 음절수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하겠다. 물론 붙임줄이나 이음줄을 사용한 경우도 아주 드물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한영서원가〉는 $4 \cdot 4 \cdot 5/4 \cdot 4 \cdot 5//3 \cdot 4 \cdot 5/4 \cdot 4/4 \cdot 6/4 \cdot 6/3 \cdot 4 \cdot 5/4 \cdot 4$ 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다. 후렴이 6음보격이고 앞부분이 2음보격으로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곡조의 구조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면 8음보격으로 무리가 없는 구조이다. 각 행을 중심으로 음보나 음수율을 원곡과 비교하면 1,2행은 동일한 $8 \cdot 5$ 조이고 3행과 4행은 1음절의 과음절(寡音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바로 리듬에 영향을 주는데 5째 마디의 마지막 박에서 붙임줄을 사용하여 과음절을 해결하고 있다.

5행과 6행에서는 1음절이 많고, 7행과 8행은 1음절의 과음절이 있어 역시 5째 마디의 마지막 박에서 붙임줄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는 악곡의 구조 상 반복되는 부분인데 가사를 개사할 때도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개사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곡과 비교할 때 음절수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곡조의 리듬 차이도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원곡을 원용한 유형의 노래들을 보면 음보격이나 음수율에서 거의 차이가 미미하여 전체적인 리듬은 부정리듬을 사용하여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원곡을 원용한 노래는 가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원곡과 유사하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리듬도 역시 원곡과 유사한 부정리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정 리듬이 약화된 유형

원곡의 리듬은 대부분 부정리듬으로 진행되는 데에 반해 상대적으로 부정리듬이 절제되어 최소화 된 형태로 나타나는 노래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겠다.³⁹⁾ 이들 리듬의 변화를 상세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문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음수율의 음조보다는 음보단위로 음절을 살펴 그 미묘한 차이를 보겠다. 음수율보다는 음보 단위로 구체적인 음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리듬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가사의 전체 구조를 음보단위의 음절로 파악하여 리듬과의 결합양상을 보고자 한다.

〈작대〉⁴⁰⁾는 『최신창가집』(1914)과 『애국창가』(1916)에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作隊’와 ‘데+장 작딕가’로 노래 제목을 표기하고 있다. 이 노래는 만주 독립군 진영에서 대를 지어 전진하며 단결심을 고취시켜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불렀다고 한다.⁴¹⁾ 가사는 『최신창가집』에는 2절, 『애국창가』는 3절까지 수록되어 있고 각 절 4행, 후렴 4행으로 모두 8행으로 구성되어 앞부분은 $4 \cdot 4 \cdot 5/4 \cdot 4 \cdot 5/4 \cdot 4 \cdot 5/3 \cdot 5$ 이고 후렴은 $5 \cdot 5/5 \cdot 5/4 \cdot 4 \cdot 5/3 \cdot 5$ 로 음절은 1,2절이 동일하다. 음악형식을 보면 『최신창가집』에는 Ab장조

39) 항일가요에서 〈조지아행진곡〉을 원용한 노래들의 원곡은 찬송가 〈우리들의 싸울것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33개의 부정리듬이 사용되었다. 이를 충실하게 원용한 항일가요의 활용 곡들은 부정리듬이 많게는 각 악곡 별로 27~33개 정도로 나타난다. 『광복의메아리』〈신흥무관학교교가〉 35개, 〈독립군가〉 33개, 김인식 『보통창가집』〈압호로〉 32개, 〈구세군가〉, 〈군병가〉, 〈깊이생각〉, 〈한영서원가〉는 모두 각각 27개를 사용하고 있다.

40) 『애국창가』의 〈작대가〉도 음수율이나 음보율이 동일하여 붙임새에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구조의 리듬을 구현하고 있다.

41) 이종연, 『신대한국독립군의 백만용사야』, 해안, 1998, 124쪽.

4/4박자 16마디이고, 『애국창가』에는 A장조 4/4박자 16마디 구성으로 조성이 다르다. 리듬은 ♪ ♪ ♪ ♪ ♪ ♪ ♪ ♪ ♪ ♪ ♪ ♪ ♪ ♪ ♪ ♪의 리듬 형으로 거의 유사하다. 후렴에서는 ‘만세만세’에 ♪ ♪ ♪ ♪를 사용하여 비교적 점4분음표(♩)의 긴박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마디마다 첫 박에 부점 리듬이 출현하고 이어서 8분음표의 균등리듬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다.

〈악보 5〉 〈작대〉의 가사와 악보

가사	원본 악보	해보 악보
一. 동포들아세를지어노래부르세 아름다운목소리와깃분맘으로 고함소래노피하며용맹스럽게 거름을맞초며가세 (후렴) 아모근심염여말고갓튼맘으로 거름을맞초며가세 만세만세를갓치부르며 만세만세를노래합시다 二. 지금우리행보하여나아갈새에 정숙하고엄정하여문난합업시 단정하고활발스러운구두소래에 거름을맞초며가세		작대 (作隊) 

〈작대〉와 유사한 가사를 가진 노래로 〈압호로〉가 있다. 〈압호로〉⁴²⁾는 〈작대〉의 가사와 1절의 앞부분 가사는 동일하고 후렴은 다르다. 리듬은 〈작대〉는 부점 리듬이 제한적인데 반해 〈압호로〉는 부점리듬이 주를 이룬다. 동일한 내용의 가사라도 리듬과 조성을 달리하며 다름을 추구하고 있다. ‘압호로’는 후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강조한 가사인데 곡명이기도 하다.

〈보국〉은 『최신창가집』(1914)에는 保國으로, 『애국창가』(1916)에는 第五장 〈보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곡의 가사는 각각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작대〉와 음절수가 거의 유사하다. 『최신창가집』에는 가사만 수록되어 있고 ‘보표는 상동’이라고 표기되어 있다.⁴³⁾ 이는 앞쪽에 수록된 〈작대〉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보국 1절 가사는 4·4·5/4·4·5/4·4·5/3·4이고 후렴은 4·5/4·5/4·4·3/4으로 〈작

42) 김인식, 『교과적용보통창가집 전(敎科適用普通唱歌集 全)』, 경성(京城): 보급서관(普及書館), 1912, 第二十六. 이 자료집은 오선보와 한국어로 기록된 음악교과서이다. 보통학교와 고등학교, 고등여학교의 교수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발행사는 경성의 청송당서점(靑松堂書店)으로 옮겨서 1917년 5월 8일 재판을 발행하였다. 초판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43) 광성학교 『최신창가집』, 84쪽.

대>와는 음절수가 차이가 있어서 사실 〈보국〉의 곡조에 가사를 붙이면 차이가 있어 부르기가 어색하다. 즉 마지막 어절 ‘무강곶네’를 8박에 걸쳐 리듬 분할을 하며 곡조의 선율을 맞추는 방식이다. 대부분 1음1자로 리듬을 구현하는 방식에 비하면 상당히 예외적인 리듬이라 하겠다. 이처럼 부득이하게 음절에 곡조를 맞춰 부르지만 이를 통해 당시의 노래 창작 방법을 짐작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곡조에 가사만 바꿔 부르는 방식이 통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성(警醒)〉은 『최신창가집』(1914)에 동일제목으로 두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가사와 곡조가 다르다. 〈조지아행진곡〉을 원곡으로 하는 곡은 ‘열성있난 청년들아’로 시작되는 노래로 악보는 없이 가사만 수록되어 있고 보표는 〈작대가〉와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b장조 4/4박자 16마디의 악곡 형식을 갖추고 있다. 가사의 음수율을 보면 4·4·5/4·4·5/4·4·5/4·5이고 후렴은 8·5/8·5/4·4·5/5·4로 음보율은 동일하지만 음절수는 차이가 있어 리듬도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후렴1, 2행은 8·5의 음수로써 가장 많은 음절수를 보이고 있다. ‘네아모리 네아모리’로 표현된 가사로 외치듯 빠르게 몰아쳐 ♪♪♪♪♪♪♪♪♪♪♪♪로 리듬을 구사하며 건국청년이 있는 한 아무리 억압과 약탈을 일삼아도 심신은 뺏을 수 없다고 소리쳐 외치듯 표현하고 있다. 역시 이 곡의 주요 리듬은 8·5조에 맞춘 ♪♪♪♪♪♪♪♪/♪♪♪♪♪♪♪♪//가 자주 등장하여 원곡의 곡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노가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청년회가〉는 『배달의 맥박』에 수록된 곡이다. 가사는 4·4·5/4·4·5/4·4·5/3·3이고 후렴은 4·4/4·4/4·4·4/3으로 후렴 1, 2행의 리듬이 지금까지의 8.5조 악곡들과는 다르다. 대부분이 8분음표에 이어 점4분음표로 뒤 음절이 길어(♪♪♪♪) 외치듯이 부르는 느낌이지만, 이 곡은 앞 음절이 점4분음표 뒤 음절이 8분음표 ♪♪♪♪로 ‘대구대구’, ‘청년청년’을 강조하며 부른다. 이는 다른 활용 곡에서 느껴지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기 보다는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대구청년회가〉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라보전〉⁴⁴⁾은 중국 관내에서 일제 강점기에 널리 불린 곡으로 가사의 구조적인 면에서 원곡의 구조를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모두 3절의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 4행을 1연으로 각각의 절을 이루고 후렴도 4행을 갖추고 있다. 음수율을 보면 앞부분은 4·4·5/4·4·5/4·4·5/2·4 후렴은 4·5/4·5/4·4·5/3·4로 되어 있어 8·5조로 볼 수 있다. 4행의 2·4음수율과 8행의 3·4음수율은 음절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리듬도 ♪♪♪♪♪♪/♪♪/으로 맞춰 부른다.

1, 2, 3, 7행의 4·4·5의 3음보로 된 8·5조 음수율 구조에서는 ♪♪♪♪♪♪♪♪/♪♪♪♪♪♪로 일자 일음의 구조로 맨 마지막 음절을 ♭로 장인(長引)하여 숨을 쉬고 호흡을 정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동시에 다음에 이어지는 어절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도 제공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제창, 합창에서는 호흡을 맞추기 용이한 구조이다.

〈독립가〉⁴⁵⁾는 〈나라보전〉과 가사의 구조가 유사하다. 다만 2행이 3·4·5로 약간의 변화를 주었고, 4행과 8행에서 8·5의 음수율을 보이는데 이는 앞부분이 4·4·5/3·4·5/4·4·5/8·5, 후렴은 4·5/4·5/4·4·5/4·4·5로 음절수가 많기 때문에 〈나라보전〉과는 달리 4행의 ‘살아고나 살아고나 이 한 소

44) 〈나라보전〉은 『망향성』에 처음 보이나 본고에서는 노동은, 『항일음악 330곡집』, 212~213쪽을 참고하였다.

4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 자료번호; 1-000924-003『獨立歌』

리에를 ♪ ♪ ♪ ♪ ♪ ♪ ♪ ♪ / ♪ ♪ ♪ ♪ ♪ ♪ /로 리듬을 잘게 쪼개어 곡조의 박자에 맞춰 부르는 구조이다. 음절 수 4·4·5에서 4·4는 8로 볼 수 있어 4·4·5는 곧 8·5조이다. 따라서 3·4·5도 앞의 3·4는 4·4에서 한 음절이 떨어진 변형된 형태로 8·5조에 해당한다.

〈표 4〉 부점 리듬이 약화된 유형의 항일가요

곡명	출처	1절 음수율	후렴 음수율
작대	최신창가집	4·4·5/4·4·5/4·4·5/3·5	5·5/5·5/4·4·5/3·5
보국	최신창가집	4·4·5/4·4·5/4·4·5/3·4	4·5/4·5/4·4·3/4
경성	최신창가집	4·4·5/4·4·5/4·4·5/4·5	8·5/8·5/4·4·5/5·4
국문창립기념	최신창가집	4·4·5/4·4·5/4·4·5/4·2	4·3/4·4/4·4·4·5/3·4
대구청년회가	배달의 맥박	4·4·5/4·4·5/4·4·5/3·3	4·4/4·4/4·4·4·4/3
나라보전	항일음악330곡집, 망향성	4·4·5/4·4·5/4·4·5/2·4	4·5/4·5/4·4·5/3·4
독립가	항일음악330곡집	4·4·5/3·4·5/4·4·5/8·5	4·5/4·5/4·4·5/4·4·5

이들 노래는 원곡의 가사구조와 유사하게 정형성의 주 리듬인 4·4·5, 3·4·5, 4·4·3등으로 나타난 8·5조를 보이지만 다른 다양한 리듬이 혼재되어 일정한 리듬이 제거된 5·5, 3·3, 3·5, 4등 변형된 자유로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유형 중 대표적인 노래인 〈작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⁴⁶⁾ ‘동포들아 때를지어 노래부르세’는 4·4·5로 ♪ ♪ ♪ ♪ ♪ ♪ ♪ ♪ / ♪ ♪ ♪ ♪ ♪ ♪ /의 리듬을, ‘걸음을마추며 가세’는 3·5로 ♪ ♪ ♪ ♪ ♪ ♪ / ♪ ♪ /의 리듬을, 후렴의 ‘만세 만세를 같이부르며’는 5·5로 ♪ ♪ ♪ ♪ ♪ ♪ / ♪ ♪ ♪ ♪ ♪ ♪ /의 리듬을 각각 생성한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8행의 다양한 음수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리듬의 다양성과 직결된다. 이러한 음수율은 가사의 시형과 박자는 관련이 없고 오로지 악곡의 리듬과 패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원곡을 충실하게 원용한 노래와 원곡의 부점 리듬을 최소화한 노래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들 노래의 가사 구조는 모두 8행의 3음보와 2음보가 혼재된 8·5조를 중심으로 한 변체 시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눈에 띄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부점리듬의 출현 빈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점리듬과 가사의 음수와는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악보를 통해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다.

46) 아래 표에 제시한 가사는 원본의 가사를 원용하였고 설명 부분의 가사는 현대어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5〉 〈작대〉와 〈독립군가〉를 통한 부정 리듬 비교

곡명	악보	음수율	부정 리듬 수
작대		4·4·5	2회
독립군가		4·4·5	6회

이처럼 가사의 음수가 동일하더라도 박자의 길이를 달리하여 얼마든지 리듬을 다르게 구현할 수 있어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곡들은 동일곡조의 동일가사 구조를 가졌더라도 리듬을 달리하여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항일가요를 확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가사구조와 리듬 형태의 변이형

〈구주전장한인군가〉⁴⁷⁾의 가사는 『신한민보』에 발표되었다. 6절의 가사를 가진 노래로 G장조 4/4박자 16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음절수를 보면 1절은 3·4·4/3·4·4/3·4·4/3·4·4의 3음보로 모든 여구가 고르게 11개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원곡이 대부분 8·5조의 음수율인데 반해 음절수를 덜어 내고 있기 때문에 마디마다 이음줄이나 4분음표를 사용하여 음절과 리듬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구현해 내고 있다. 또한 후렴에서는 3·3·5/3·4·4/3·3·5/3·4·4의 음수로 다른 활용 곡에 비해 음절수가 많은데 이를 16분 음표, 8분음표, 4분음표, 점4분음표, 2분음표 등 다양한 리듬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15번째 마디에서는 ‘러시아’의 각 음절을 강조하기 위해 정확하게 리듬을 나누는 ‘셋잇단음표’⁴⁸⁾의 독특한 리듬을 사용하여 마디 안에서 음절을 소화하며 표현하고 있다. 특히 4행과 8행에서 3·4·4의 3음보의 11음절은 다른 어떤 활용곡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의 리듬이 이들 음절을 소화하기 위해 4행은 ♩ ♩ ♩ ♩ ♩ ♩ ♩ ♩ ♩ ♩ ♩ ♩ ♩ ♩ ♩ ♩ 8행은 ‘러시아 깊은은공 갓으리라’를 셋잇단음표를 선두로 ♩ ♩ ♩ ♩ ♩ ♩ ♩ ♩ ♩ ♩ ♩ ♩ ♩ ♩ ♩ ♩ 리듬을 보인다.

〈국민회가〉는 『신한민보』에 발표된 곡⁴⁹⁾으로 작사자는 성우이다. 가사는 5절로 각 절은 2행으로 구성하였고 후렴은 6행으로 구성하여 후렴이 12마디를 차지하고 있다. 각 절의 앞부분은 4·4·5/4·4·5이고 후렴은 3·4·5/5·2/4·5/4·5/3·4·4/5·2의 음수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8행으로 G장조 4/4박자 16마디로 원곡의 구조와 동일하고 다만 후렴구가 6행으로 길고 7,15마디에서 각각 부정 리듬을 사

47) 가사는 『신한민보』 1917년 9월 13일 3면에 게재된 기사를, 악보는 노동은 편저 『항일음악330곡집』 200쪽을 참고하였다.

48)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곡조에서 셋잇단음표의 사용은 이 〈구주전장한인군가〉가 유일하다.

49) 〈국민회가〉는 『신한민보』 1932년1월28일 4면에 발표되었다. 악보는 노동은 『항일음악 330곡집』 486쪽을 참고하였다. 〈국민회가〉는 ‘동포영에 증진하며’로 시작하는 노래 외에 또 다른 가사의 노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민보 1925년 1월 22일 1면에 게재된 〈국민회가〉는 가사가 이와 다르며 곡조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용하지 않고 4분음표로 길게 힘주어 ♩ ♩ ♩ ♩ ‘대한국민회’를 강조하여 부르고 있다.

〈조선의 자랑〉⁵⁰⁾은 『근화창가』(1921)⁵¹⁾에 수록된 곡으로 G장조 4/4박자 8마디로 후렴이 없이 편곡된 악곡이다. 가사는 후렴이 없이 4·4·5/4·4·5/4·4·5/4·4·5의 4행 4절로 8·5조의 정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리듬구조는 ♩ ♩ ♩ ♩ ♩ ♩ ♩ ♩ ♩ ♩ ♩ ♩ ♩,으로 동일 구조로 4회 반복하여 부르는 단순한 구조이다.

〈악보 6〉 〈조선의 자랑〉 가사와 악보

가사	악보
朝鮮의 자랑 一 장하고도 아홉달다 無窮花別관 二 六大湖의 꽃보다 더 錦繡江山 三千里는 우리정이어 五大洋을 속속드리 뒤져보아도 聖子神孫 二千萬은 우리길에며 山高하며 水闊하야 世界公園은 半萬年의 進歷史는 우리비침세 三千里의 錦繡江山 하나뿐일세 三 十六億의 世界人種 聚立하고 四 이세상의 萬古書冊 한대모으고 모든質問 가진試驗 대히로아도 이리찾고 저리뒤져 알만보아도 슬기있고 섣속하야 文明人種은 오래되고 기록하야 世界오늘은 二千萬의 우리民族 하나뿐일세 半萬年의 進歷史 하나뿐일세	

〈깊이생각〉⁵²⁾은 동일한 제목으로 광성학교 『최신창가집』(1914)과 하와이 『애국창가』(1916)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노래는 제목과 가사는 동일하나 곡조는 다르다.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의 〈깊이생각〉⁵³⁾은 〈거국행〉⁵⁴⁾과 동일한 곡조로 C장조 6/8박자 12마디의 후렴이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하와이 『애국창가』

50) 본고에서는 노동은 『향일음악330곡집』 456쪽을 참고하였다.

51) 『근화창가』는 일제강점기에 금지됐던 노래책으로 1921년 근화사에서 노영호가 편찬하였다. 민족음악학자 고(故) 노동은 교수가 발굴하였는데 현재는 평택시 한국근현대음악관에 전시되어있다. 〈조선의 자랑〉, 〈을지문덕〉, 〈강감찬〉, 〈새벽빛〉, 〈굿바이〉, 〈어머니의사랑〉, 〈시조〉 등 총 7곡의 가사가 오선보 및 숫자보의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52) 하와이 『애국창가』의 〈깊이생각〉과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에 수록된 〈깊이생각〉을 동일곡조로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김보희, 앞의 논문, 182~185쪽) 이는 재고해 보아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53)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XVI) 일본篇④ 最新唱歌集 附樂典,영인본, 국가보훈처, 1996, 103쪽, 광성학교 『최신창가』〈깊이생각〉은 가사만 표기되어 있고 악보는 없이 譜表란 二十一 去國行과 同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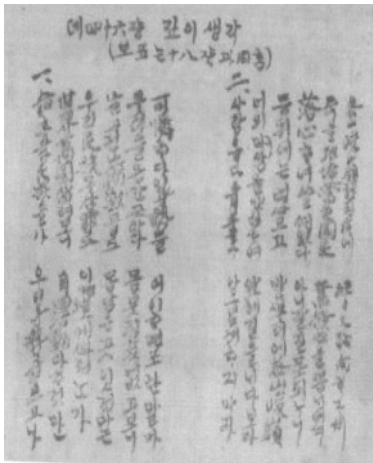
54) 광성학교 『최신창가』에 수록된 〈거국행〉은 ‘간다간다 나는 간다’로 시작되는 가사로 안창호가 작사하고 이상준이 작곡한 곡이다.

에 수록된 〈깊이생각〉은 第十八장 〈한영서원가〉⁵⁵⁾와 동일 곡조다. 〈한영서원가〉는 Bb장조 4/4 구성으로 〈조지아행진곡〉 곡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애국창가』에 수록된 〈깊이생각〉의 가사는 후렴이 없이 2절로 된 완전한 4·4조 구조다.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노래의 대부분이 변격의 8·5조 구조를 가진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4·4조 가사가 어떤 방식으로 〈한영서원가〉 곡조에 얹어 불렀는지 활용 곡들을 통해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먼저 4·4조 12행의 가사를 16마디에 부르기 위해 두 마디마다 마지막 박에 2박으로 장인(長引)된 구조를 지켜서 3어절을 두 마디에서 ♪ ♪ ♪ ♪ ♪ ♪ ♪ ♪ / ♪ ♪ ♪ ♪ /로 해결하는 부점 리듬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24어절을 16마디로 부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원곡의 ♪ ♪ ♪ ♪의 후렴리듬을 살리기 위해 2, 4, 6, 14마디에서 2분음표로 장인되는 박에 한어절을 ‘♪ ♪ ♪ ♪’리듬으로 빠르게 연이어 부르는 방법이다. 그러면 후렴구 7, 9, 11마디에서 ♪ ♪ ♪ ♪의 리듬을 구현할 수 있다. 참고로 〈깊이생각〉가사와 〈한영서원가〉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악보 7〉 〈깊이생각〉 가사

『애국창가』 깊이생각	깊이생각 가사
	一.
	슬흐도다 民族들아
	우리身勢 슬으고나
	世界萬國 삶혀보니
	自由活動 다흐것만
	우리民族 무삼罪로
	이地境에 빠짓는가
	날고기는 禽獸들도
	몸담을곳 잇것마는
	우리들은 간곳마다
	二.
	사랑옵다 靑年들아
	아모념려 흐지마라
	너의마음을 안심흐여
	앞헤길을 닛다보라
	등뒤에는 범싸르고
	발뿌리에 泰山峻嶺
	落心 흐여 쓸씩없다
	아니갈길 못되느니
	죽을地境 當한國民
	奮發心を 켜니여서
	泰山峻嶺 헛진后에
	坦坦大路 向흐즈세

〈제3로군성립기념가〉⁵⁶⁾는 리조린이 작사한 4절로 된 노래다. 그런데 대부분의 활용 곡의 가사가 각 절 4행과 후렴 4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가사 측면에서는 후렴이 없이 각 절마다 8행의 가사를 모두 다르게 개사하였다. 3·3·5/3·4·4/4·4·5/6·4/4·5/4·4·5/4·4의 음수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5행부터 8행까지의 가사는 후렴의 곡조에 얹어 부르고 있어 대부분의 활용 곡들과 유사한 구조이다.

55) 『애국창가』, 하와이 호놀룰루, 1916, 46쪽, ‘보표는 十八장과 동일’하다고 표기되어 있다. 十八장은 〈한영서원가〉를 말한다.

56) 이빈, 『동북항일연군가곡선』, 중국: 하얼빈출판사, 1991, 42쪽.

곡조의 리듬에 있어서는 점8분음표와 16분음표가 이어지는 부점 리듬은 제거되고 8분음표의 균등한 리듬으로 변화를 주는 등 가사의 구조와 곡조의 리듬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활용 곡들과는 분명 다름을 보여준 노래다. 가사와 악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제3로군성립기념가〉 가사와 악보

- | | |
|---|---|
| <p>1.
 눈부신 신주땅 백산흑수가
 왜놈들 쇠발굽에 짓밟힌다
 유린 속에 허덕이는 중화민족은
 산과들을 피로 물들인다
 분에넘쳐 일떠나섰다
 나라위해 왜적을 친다
 강철같은 항일군대 묶어세워서
 우리강산 찾아오자</p> | <p>3.
 눈강평원 돌파한 유격전쟁은
 거침없이 내달리며 도움 받는다
 항일투쟁 조류를 일으키면서
 온 나라의 대궐기에 따르자
 왜적 한간 잡아 치우며
 봉쇄선을 물리쳐가자
 구국중책 함께 지고 기세 드높이
 피의 값을 피로 받아내자</p> |
| <p>2.
 길림성과 흑룡강 휩쓸어가며
 송화강 흥안령에 슬기 넘친다
 빙설천지 삭풍도 염친 폭우도
 투사들을 막지 못한다
 진군나팔 소리 울리면
 돌격 고함 천지 흔든다
 팔년 동안 지체 없이 싸워왔으니
 하늘에 맞으리라 그 자랑</p> | <p>4.
 온 나라가 항일에 끓어 번진다
 중원에 항일 불길 펼쳐져진다
 동북항일 력량을 모두어 주는
 제 3로군 성립되었다
 슬기롭게 화선에 나서며
 왜놈들을 쓸어 넣힌다
 민족혁명 승리의 날 붉은기 높이
 개선가를 우렁차게 부르자</p> |



가사와 리듬의 변이형을 곡명별로 음보의 음수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가사와 리듬의 변이형

곡명	출처	1절 음수율	후렴 음수율
구주전장 한인군가	신한민보, 1917	3 · 4 · 4/3 · 4 · 4/3 · 4 · 4/3 · 4 · 4	3 · 3 · 5/3 · 4 · 4/3 · 3 · 5/3 · 4 · 4 (셋잇단음표)
국민회가	신한민보, 1932	4 · 4 · 5/4 · 4 · 5	3 · 4 · 5/5 · 2/4 · 5/4 · 5/3 · 4 · 4/5 · 2
조선의 자랑	근화창가	4 · 4 · 5/4 · 4 · 5/4 · 4 · 5/4 · 4 · 5	없음
깊이생각	애국창가	4 · 4 · 4/4 · 4 · 4/4 · 4 · 5/4 · 4 · 4/4 4 · 4 · 4/4 · 4 · 4/4 · 4 · 4/4 · 4 · 4	없음(곡조 有)
제3로군성립 기념가	동북항일연 군가곡선	3 · 3 · 5/3 · 4 · 4/4 · 4 · 5/6 · 4/ 4 · 5/4 · 5/4 · 4 · 5/4 · 4	없음(곡조 有) ⁵⁷⁾

위와 같이 원곡과 비교할 때 가사의 구조나 음악 형식면에서 변이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가사의 구조적인 면에서 후렴구가 없이 작사된 점이 특징이다. 〈조선의 자랑〉과 〈깊이생각〉, 〈제3로군성립기념가〉에서 확인된다. 〈조선의 자랑〉은 곡조 면에서도 후렴구가 없이 8마디로 짧게 구성하였고, 〈깊이생각〉, 〈제3로군성립기념가〉는 반복되는 후렴의 가사는 없으나 원곡의 곡조를 그대로 원용하여 가사도 8행으로 구성하여 전체 16마디를 원곡대로 구현하고 있는 점에서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가사의 구조가 변체 시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조선의 자랑〉은 8 · 5조로 〈깊이생각〉은 4 · 4조로 정형성을 보인다.

곡조의 리듬적인 측면에서는 독특한 리듬을 사용하거나 부점리듬이 제거되고 균등 리듬화 된 점을 들 수 있다. 〈구주전장한인군가〉에서는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리듬을, 〈국민회가〉에서는 4분음표가 연속되는(♩♩♩♩)리듬을 사용하여 그곳에 특정 단어를 위치시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3로군성립기념가〉는 8분음표(♩)를 중심으로 독특한 형태의 균등 리듬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원곡에서는 부점리듬이 33회 출현되는 점을 상기하면 리듬이 완전히 변형된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이형태가 항일가요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조지아행진곡〉을 원용한 노래가 많아 이를 새롭게 표현해보고자 하는 창작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를 활용한 항일가요를 대상으로 곡조의 리듬과 가사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이들 대상 곡들은 곡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사의 음절수에 따른 리듬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57) 가사 측면에서는 각 절 끝에 되풀이되는 동일 시구인 후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 곡조의 후렴 곡조에 5~8행까지의 가사를 얹어 부르고 후렴의 가사를 각행 2, 2, 3, 2의 음보로 구성한 점은 여타의 다른 활용 곡들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리듬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었다. 부점 리듬이 강화된 원곡을 원용한 유형, 부점 리듬이 약화된 유형, 가사의 구조나 리듬이 독특한 변이형이 그것이다. 부점 리듬이 강화된 원곡을 활용한 노래는 9곡, 부점리듬이 절제되거나 거의 없는 노래는 10곡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곡을 그대로 원용하기보다는 부르는 집단이나 지역의 성향 또는 역사 문화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변화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의미한 연구로는 변이형을 들 수 있다. 이들 변이형 노래는 원곡에서 주요하게 강제 작동하는 후렴을 제거한 점, 또는 후렴의 곡조를 부르지만 그 위에 얹어 부르는 후렴구를 제거한 점 등은 독특한 변이 구조로 보인다. 여기에 부점 리듬을 제거하고 8분음표의 균등 리듬으로만 부른 노래가 있는가 하면 셋잇단음표와 연속적인 4분음표를 사용하여 독특한 리듬을 형성하는 등 다채로운 변이양상을 보이고있다. 이는 특정 곡조를 다양한 가사로 개사하여 ‘노가바’ 방식을 활발하게 활용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위와 같이 향일음악 관련 가요집에 수록된 〈조지아행진곡〉의 곡조를 활용한 향일가요 19곡을 대상으로 단일 곡조에 다양한 가사가 어떻게 결합하여 가사와의 관련성을 표현하며 독립된 노래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노래들은 가사의 형식과 곡조의 리듬을 비교해 볼 때,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을 원곡으로 하여 향일가요를 ‘노가바’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원곡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 근거는 가사의 구조면에서 각 절이 4행과 후렴 4행으로 구성된 점, 둘째 음수율과 음보율에서 8.5조 3음보를 중심으로 한 변체 시형으로 구성된 점, 셋째 후렴의 반복되는 어구와 변격의 음수율로 구성된 점, 넷째 가사에 내포된 의미가 진취적, 투쟁적인 면에서 향일가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향일가요는 찬송가를 통해서 ‘노가바’되었을 것으로 본다. 대한제국기나 일제 강점 초기에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작곡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향일가요는 이처럼 대중들이 널리 알려진 곡조에 노가바하여 다양한 가사들을 얹어 부르며 빠르게 용이하게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행진곡〉 곡조를 활용한 악곡 대부분은 4·4·5조의 8·5조가 중심이 된 변체 시형으로 정형화되기보다는 다양하게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형된 율조는 리듬의 구성이나 박자의 길이를 강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사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리듬의 구조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원곡의 강화된 부점 리듬을 원용한 경우, 부점리듬을 절제한 경우, 다양한 변이형이 그것이다. 먼저 가사의 구조와 부점 리듬과의 상관성을 살폈으나 밀접한 관련성은 없어 보였다. 동일 음수율을 가졌더라도 어떤 곡은 8분음표의 균등 리듬으로 어떤 곡은 이를 부점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변이형을 통해 이들 활용 곡이 다양한 방법으로서의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전초 작업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이러한 다양한 변이형의 출현은 아마도 수십 곡을 동일한 곡조로 부르다 보니 이에 대한 새로운 창작 욕구를 자극하였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 그만큼 다양한 가사를 빈번하게 동일 곡조에 얹어 여러 사람이 부르다 보니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변이형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10년대 악보를 갖춘 국외 창가집인 『애국창가』(1916)에는 〈조지아행진곡〉을 활용한 노래가 6곡, 광성학교 『최신창가집』(1914)에는 4곡이 수록되어 있다. 단일 가요집에 단일 곡조로 부르는 노래가 6곡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조지아행진곡〉 곡조의 대중성과 확장성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짐작 가능하다.⁵⁸⁾ 이러한 예는 〈철도창가〉의 활용 곡조 연구⁵⁹⁾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무엇보다도 〈조지아행진곡〉 곡조가 어떻게 항일가요에 수용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항일가요는 국가나 기관, 매체 나아가 제도권 교육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자생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처절한 존재다. 이들 항일가요는 그렇게 곡조 활용이라는 용이한 수단을 이용하여 독립에 대한 열망에 비례한 만큼 그 생명력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일가요의 곡조 활용은 주시하다시피 민요, 찬송가, 외국의 민요나 국가, 군가 등 그 예는 다양하다. 앞으로 본 연구가 이러한 분야의 항일음악을 연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 김인식, 『교과적용보통창가집 전(教科適用普通唱歌集 全)』, 경성: 보급서관, 1912.
 남희철, 『항일가곡선집』, 연변인민출판사, 2015.
 노영호, 『근화창가 제1집 조선역사창가(槿花唱歌 第一輯 朝鮮歷史唱歌)』, 경성: 근화사, 1921.
 독립군가보존회, 『독립군가곡집 광복의 메아리』, 서울: 독립군가보존회, 1982.
 독립군시가집 편찬위원회, 『독립군시가집 - 배달의맥박』(증보판), 송산출판사, 1986.
 독립기념관 소장, 등록문화재 제475호 『애국창가』, 자료번호 3-008961-000.
 동아일보, 「어린이날노래」, 1925.4.30.
 손승룡, 『창가집』, 필사본, 1900.
 전정혁 수집, 조선조항일투쟁노래선집, 료녕민족출판사, 1995.

58) 『애국창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찬송가 곡조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단일곡조의 활용을 보면 활용곡이 3개 이상 보유한 곡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동일 곡조는 1~2개로 제한적이다.

59) 노복순, 「항일가요에 나타난 가사와 곡조의 결합양상연구」, 『한국음악사학보』 65, 2020, 항일가요에서 가장 많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는 〈철도창가〉는 활용 곡으로 『최신창가집』에 6곡 수록, 『애국창가』에 4곡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문예출판사, 『혁명가요집』, 조선문예출판사, 1970.

三谷種吉, 〈第一皆進め〉, 『복음창가, 1900』, 1900.

海外的 韓國獨立運動史料(XV) 일본 篇④ 『最新唱歌集附樂典』 영인본, 국가보훈처, 1996.

Work, Henry C. (Henry Clay), Marching through Georgia, Root & Cady, Chicago (Ill.), 1865.

□ 2차 자료

김덕균, 「우리 민족 항일음악의 발전 개요」, 『남북한 음악 학술대회 논문집』, 안성: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2005.

김보희, 「북만주지역 독립운동가요」, 『한국음악연구』 43, 2008.

_____, 「1910년대 국외 애국창가에 대한 음악학적 연구」, 동양학 78, 단국대동양학연구원, 2019.

김영운, 『국악개론』, 음악세계, 2015.

노동은, 『두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 2001.

_____, 「191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음악교육과 그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0, 2004.

_____, 『한국근현대음악사』, 『한국음악연구소』, 2007.

노동은 편, 『항일음악 330곡집』, 민족문제연구소, 2017.

노복순, 「항일가요에 나타난 가사와 곡조의 결합양상연구」, 『한국음악사학보』 65, 2020.

민경찬, 「서양음악의 수용과 음악교육: 일제 강점기의 초등음악교육을 중심으로」, 『음악학』 9, 한국음악학회, 2002.

_____, 「“창가”를 다시 묻는다」, 『동어어문학』 51, 2008.

_____,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1997.

반혜성, 「1916년 하와이 호놀룰루 발행 『애국창가』 연구」, 『이회음악논집』 23: 1, 2019.

유동훈, 「항일독립군가의 분석 및 영향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수인, 「개화기 창가의 주제장르적 고찰」, 『한국학논문집』 14, 1996.

이중연,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일제강점기 겨레의 노래사』, 해안, 1998.

정한기, 「개작민요에 나타난 주제와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민요학』 56, 2019.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99.

최순배, 「항일운동기 창가의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00.

* 이 논문은 2021년 5월 5일에 투고되어,
2021년 6월 1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spect and Characteristics of Lyrics Combination for Anti-Japanese Songs

- Focusing on Songs Utilizing 〈Marching Through Georgia〉 -

Noh, Boksun*

As a general method of survival and evolution of anti-Japanese songs, there is 'lyrics-rephrasing' utilizing specific melodies. Thus, after paying attention to 〈Marching Through Georgia〉 which was one of the original songs that formed the most musical pieces, this thesis aimed to examine the aspect of combination with various lyrics and its characteristics by including the songs utilizing it.

Those subject songs had the same melody, so the analysis focused on the aspect of change in rhythm according to the syllable number of lyrics. First, comparing the form of lyrics and rhythm of melody in the songs utilizing 〈Marching Through Georgia〉, instead of the original song, the hymn No.393 〈March We Onward〉 was 'lyrics-rephrased', so this was regarded as the original song. Based on this, it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uch as a case of quoting the strengthened dotted rhythm of original song by focusing on rhythm, a case of restraining dotted rhythm, and a case of various varieties,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structure of lyrics and dotted rhythm, there was no close correlation. Despite the same syllabic meter, they were differently represented into dotted rhythm or symmetric rhythm depending on songs. There were also various types of varieties of rhythm, which might be a method of creation reflecting the desire for creation to seek for unlikeness and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lyrics-rephrasing' of the same melody into many songs.

[Keywords] Anti-Japanese Song, Marching Through Georgia, March We Onward, Independence Army Song, Songs Utilizing Marching Through Georgia, Aspect of Lyrics Combination for Anti-Japanese Songs

* Research Professor,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ersity

